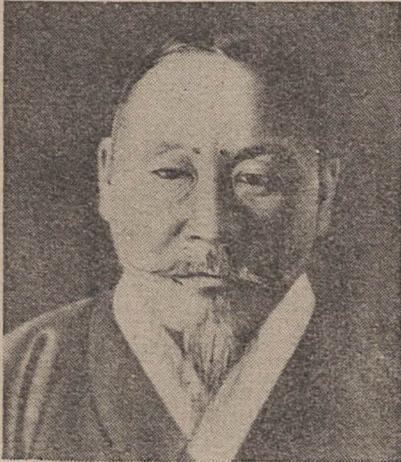


—獨立運動의 炬火◎

孫 秉 熙



1. 靑少年 時節

孫秉熙先生은 天道敎의 第3世 敎主로서 天道敎人의 崇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3·1運動의 領導者로서 民族全體의 追仰을 받아 3·1運動의 發祥地인 파고다 公園에는 先生의 銅像이 높이 솟아 있고, 牛耳洞 先生의 墓所에는 4時장철 參拜者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先生의 靑少年時節은 不遇한 環境과 失意 속에서 放蕩한 生活을 하였으며 天道敎의 前身인 東學에 入道한 以後 비로소 偉大한 人物이 된 것이다.

先生은 1861年(哲宗12年) 4月 8日 忠北淸原郡北二面 琴岩里(大周里)에서 代代로 淸州의 아전 노릇을 하는 年興의 庶子로 태어났다. 兩班專權時代에 있어서 아전의 子孫으로서의 제 아무리 훌륭한 계주가 있다하여도 戶長, 吏房等 軍政의 下級官吏 이외에는 出世할 수 없는 것인데 더욱 그는 差別待遇를 받는 庶子로 태어났으니 아전 노릇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先生은 처음에 書堂에서 漢文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나 家庭的 社會的 賤待가 莫甚하므로 15~6歲에 이르러 글은 배워서 두었하느

申 奭 鎬

나 하고 글공부를 건어 치우고 술집이나 노름판을 찾아 다니면서 酒色雜技의 不良輩로 풀려 나갔다. 先生의 兒名이 應九인데, 孫應九하면 淸州와 隣近 각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有名한 부랑배였다. 그러나 先生은 天性이 豪放하고 義俠心이 強하여 항상 強者에 對抗하고, 弱者와 불상한 者를 도와 주었다.

2. 東學入道

東學은 孫秉熙 先生이 나기 一年前인 1860(哲宗11年)에 慶州 사친 崔濟愚(水雲大師)가 唱導한 것이다. 當時 우리 나라는 安東金氏의 勢道政治로 國家의 內政이 極度로 腐敗하고 貪官汚吏가 득실거려 民生이 塗炭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外來思想인 西學 즉 天主教가 들어와 非常한 勢力으로 傳播하고 있으므로 崔濟愚는 西學에 무서운 禍根이 들어 있는 줄 알고 이 나라 百姓을 救濟하기 爲하여 數十年 苦行 끝에 새로운 指導原理인 東學을 唱導한 것인데, 東學은 우리 나라 固有의 至上神인 上帝를 主體로 삼고 東洋에 根源을 둔 儒佛仙三敎의 精華를 뽑아서 이룩한 것으로 人乃天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思想으로 布德天下하에 廣濟蒼生 保國安民하는 것이 最高 目標였다. 그러므로 東學은 宗教運動과 政治運動을 兼한 것이었다. 그리고 傳道方法은 21字의 呪文을 외우므로써 災難을 免하고 不老長生한다 하는 것이었으므로 우리 民族의 思想과 感情에 適合하여 一時에 下流階級에 傳播되어 1863年(哲宗14年)에는 三南各地에 布敎師인 接主制度가 實施되었다. 그러나 政府에서 이것을 邪教로 斷定하고 崔濟愚를 惡世誣民한다는 罪로 잡아서 大邱監堂에 가두었다가 이듬해 즉 1864年(高宗元年)에 死刑에 處하고 그 弟子 數十名을 귀양보냈다.

그러나 民衆의 自覺에서 일어난 東學은 政府의 힘으

로 이것을 막을 수 없었다. 崔濟愚가 死刑을 당한 뒤 그 弟子 崔時亨(海月)이 二世敎主가 되어 數十年 동안 비밀히 傳道한 결과 全國각지에 퍼지게 되었는데, 忠淸道에는 孫秉熙先生의 長足下되는 孫天民이 淸州의 吏房으로 있으면서 東學의 한 頭目이 되어 있었다. 孫天民은 그의 庶三寸인 孫秉熙가 비록 放蕩한 生活을 한다 할지라도 하는 일을 보아 큰 人物이 될 줄 알고 여러 敎人들에게 入道시킬 것을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그런 不良輩을 入道시켰다가 우리의 秘密이 탄로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贊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孫天民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 하고, 하루는 孫秉熙先生의 집을 찾아가 東學을 믿으면 三災八難을 免한다 하고 入道할 것을 勸誘하니, 先生은 即席에서 拒絕하기를 나는 三災八難이 하루 빨리 와서 이 世上이 뒤집혀지는 것을 願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것 믿기 실소 라고 하였다. 그러나 孫天民은 斷念하지 아니하고, 다시 當地의 接主 徐虞淳을 보내서 東學은 事天如人(人乃天)의 平等思想을 가지고 布德天下하여 廣濟蒼生하고 保國安民하는 것이 最高目標라 하니, 그제서야 그것은 나의 뜻과 같다고 마침내 徐虞淳의 집에서 入道式을 舉行하였는데, 이것이 1882年(高宗19年) 10月 5日 先生의 나이 22歲 때의 일이었다.

先生은 東學에 入道한 以後 이제까지 그렇게 좋아하던 酒色과 노래, 춤, 도박을 끊고 집에 들어 앉아 修養하였는데, 修養方法은 하루에 呪文 萬番을 외우고 집신 두결례를 삼아서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날에 내다 팔아 生活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數年동안 이러한 修道를 繼續하여 褊範 道人이 되었으므로 1884年(高宗21年) 10月 5日 그의 入道二週年 記念日에 敎主 崔時亨이 慶州로부터 찾아와 先生을 만나 보고 크게 기뻐하여 그를 데리고 益山 獅子菴에 가서 49일의 기도를 올리고 그 후 항상 先生을 데리고 다녔다. 崔時亨은 여러 弟子 가운데 將來가 촉망한 사람이 셋이 있었는데, 그 사위 金演局과 孫天民 및 孫秉熙였다. 崔時亨은 일찌기 金演局에게 龜菴, 孫天民에게 松菴, 孫秉熙에게 義菴이란 號를 주고 三菴이 合心하여 布德天下 廣濟蒼生 保國安民할 것은 當부하였는데, 그 중에도 天性이 機敏하고 豪放한 義菴이 항상 앞장서서 活動하였으므로 마침내 崔時亨의 뒤를 이어 三世敎主가 된 것이다.

3. 敎祖伸冤運動과 孫秉熙

1885年(高宗22年)에 崔時亨은 東學의 根據地를 忠北 報恩郡 帳內로 移轉하고 金演局, 孫秉熙, 孫天民等과 함께 熱心히 進도하여 敎勢가 크게 擴張되었으나, 政府의 탄압이甚하므로 숨어 다니면서 布敎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특히 1892年(高宗29年)에는 忠淸監司 趙秉式이 貪虐不法한 것을 하는 同時에 크게 東學은 彈壓하고 崔時亨逮捕令을 내리므로 그들은 一時 尚州로 避身하였다.

國家의 形便이 內外로 말이 아닐정도로 혼란한데 廣濟蒼生과 保國安民을 目標로 한 東學이 숨어 다니면서 活動할 수만 없는 것이다. 더욱 基督教, 天主教等 西洋의 宗教는 公公然하게 布敎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의 固有 宗教인 東學만 禁止하는 것은 不合理한 일이다. 그러므로 孫秉熙 先生은 억울하게 죽은 敎祖 崔濟愚의 罪를 伸冤하여 信敎의 自由를 얻을 것을 崔時亨에게 建議하였다. 이에 崔時亨은 그해 10월에 全國의 接主를 全北 參禮에 集合시켜 東學大會를 開催하고 全羅監司 李耕積과 忠淸監司 趙秉式에게 交涉하였던 바 罪人의 伸冤은 中央政府의 所管이라 하므로 崔時亨은 다시 政府를 相對로 敎祖伸冤運動을 展開하기로 하고, 이듬해 즉 1893年(高宗30年) 2월에 再次 東學大會를 報恩 帳內에서 開催하고, 孫秉熙等 30餘名의 頭目을 서울에 보내서 國王에게 上疏하였던 바, 도리어 東學의 魁首를 잡으라는 嚴令이 나리게 되었다. 이에 崔時亨은 다시 全國의 敎徒 數萬名을 帳內에 召集하여 石城을 쌓고 敎祖伸冤보다도 除暴敎民과 保國安民, 斥倭斥洋 등의 旗幟를 높이 내걸고 一種의 革命運動을 企圖하였으나, 政府에서 兩湖巡撫使 魚允中을 派遣하여 解散할 것을 說諭하는 한편 京軍 一千名을 派遣하므로 崔時亨은 敎徒를 解散시키고 말았다.

4. 東學 革命運動과 孫秉熙

이와 같이 崔時亨은 敎祖伸冤運動을 展開하여 革命運動까지 企圖하다가 失敗하였으나 이듬해 湖南地方에서 東學革命軍이 일어났다. 이때 東學에는 南接과 北接의 區別이 있었는데 南接도 古阜의 全璉準을 中心으로 한 湖南地方의 東學을 말하고 北接은 東學의 主流 崔時亨을 中心으로 한 湖西地方의 東學을 가르치는 것이다. 처음에 南接의 首領 全璉準은 古阜郡守 趙秉甲의 貪虐不法으로 因하여 1894年(高宗31年)正月에 古阜郡의 農民들과 함께 民亂을 일으켰으나, 이 民亂을 調查하기 위하여 派遣된 李容泰가 民亂의 責任을 東學에 돌리고, 民亂에 加擔한 農民을 모두 東學이라 하여 逮捕하는 同時에 그 家屋을 破壞하고 家族을 迫害하므로 그해 3월에 全璉準을 다시 保國安民과 斥洋斥倭를 부르짖고 隣近 各地의 東學首領과 함께 一齊히 起包하여 郡廳을 습격하고 武器를 奪取하여 全羅監司의 所在地인 全州城까지 占領하였다. 이와같이 全羅道 一帶가 東學에 陷沒되자 閔氏政府는 兩湖招討使 洪啓薰으로

하러갈 京軍 八百名을 거느리고 이를 對戰하게 하는 한편 淸國에 應援을 請하므로 全琫準은 政府軍과 休戰하고 一時 解散하였다. 그러나 그해 六月에 淸軍이 牙山灣에 上陸함과 同時에 日本軍도 또한 들어와 마침내 淸日戰爭과 甲午更張이 일어나 우리나라는 完全히 日本의 支配下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全琫準은 保國安民과 斥倭를 불으려고 九月에 세번째 起包하여 九萬大軍을 거느리고 論山에 集結하였다. 이때 全琫準은 倭軍을 驅逐하고 서울로 쳐 들어가 權貴를 다 죽이고 革命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처음에 南接에서 革命軍을 일으킬 때 北接의 여러 幹部들은 全琫準의 輕舉妄動을 聲討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南接에서 아무 連絡도 없이 起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報恩大會의 失敗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孫秉熙先生이 이것을 反對하고 北接도 起包하여 抗日救國戰線에 나설것을 積極主張한 까닭에 教主 崔時亨은 마침내 北接軍 六萬名을 起包하여 孫秉熙를 北接統領에 任命하였다. 이어 孫秉熙先生은 北接軍의 最高司令官이 되어 여러 頭目들이 引率한 東學軍을 거느리고 報恩, 淸州, 懷德等の 官軍을 격파하고 論山에 到着하여 南接統領 全琫準과 行動을 같이 하였다. 이때 東學軍은 南北接을 합하여 約 20萬名 號曰 百萬이라 하고 10월에 서울을 向하여 北上하다가 公州에 이르러 日本軍과 官軍의 聯合軍을 만나 利仁戰鬪와 孝浦戰鬪에서 敗하고 12月 2日 有名한 牛金峙戰鬪에서 慘敗하여 後退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全琫準과 孫秉熙는 論山, 全州를 거쳐 全溝에 이르러 東學軍을 再整備하고 追擊하는 日本軍과 싸워 또한 敗하여 淳昌으로 後退하였는데, 全琫準은 避老里란 山村에서 地方人 韓信賢의 습격을 받아 逮捕되어 마침내 刑場의 이슬로 化하고, 孫秉熙는 任實에서 崔時亨先生을 만나 忠淸道로 들어가 忠州에 避身하였다.

5. 東學의 道統繼承과 日本亡命

東學의 革命運動이 失敗한 뒤 南接의 頭目 大部分이 戰死 또는 逮捕處刑 되었기 때문에 潰滅狀態에 빠졌으나, 北接頭目은 大部分 無事하였다. 그러므로 忠州에 避身한 崔時亨은 孫秉熙, 金演局, 孫天民, 朴寅浩, 李容九等 여러 頭目과 함께 數年동안 忠淸道, 江原道, 各地로 숨어다니면서 다시 布教活動을 繼續하였다. 그동안 官憲의 追跡을 받아 붓잡힐번한 것이 여러번 있었으나 그럴 때 마다 孫秉熙先生의 豪放한 態度로 말미암아 逮捕를 免하였다. 그러나 1899年(光武3年) 4월에 原州 송곡에 숨어 있을 때 不幸이도 逮捕되어 死刑을 당하였다.

崔時亨은 본래 殉教할 것을 覺悟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이 이미 70을 넘었으므로 이보다 2年前인 1897년에 孫秉熙 金演局 孫天民 세 弟子를 불러놓고 孫秉熙에게 道統을 넘길 것을 宣言 하였다. 崔時亨이 일찍부터 東學에 入道하여 苦樂을 같이한 자기 사위 金演局을 제쳐 놓고 孫秉熙에게 道統을 넘긴 것은 孫秉熙의 人物이 出衆하였기 때문이며 東學을 爲한 公心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決定에 對하여 不滿을 품은 것은 金演局이었다. 그러므로 金演局은 崔時亨이 死亡한 뒤 孫秉熙先生이 道統繼承式을 舉行하려고 할 때 故意로 나오지 아니하여 就任式이 여러번 연기되었으며 또 뒷날 孫秉熙先生이 東學을 天道教로 개칭하고 賣國奴 一進會長 李容九等을 除去 할 때 金演局은 李容九가 主導하는 侍天教로 달아나 天道教에서 離脫하게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孫秉熙先生은 崔時亨이 死刑을 당한지 一年을 지나 1900年(光武4年) 7月 20日 慶北 豊基에서 宗統繼承式을 舉行하고 東學의 最高職責인 大道主에 就任하여 正式으로 第三世 教主가 되었다. 이때 先生의 나이 40歲였다. 淸州의 부랑한 한 아전의 庶子가 百萬教徒를 號令하는 東學의 教主가 될 줄이야 꿈엔들 생각하였랴.

先生은 教主로 就任하던 날 孫天民을 誠道主, 金演局을 信道主, 朴寅浩를 敬道主에 任命하는 同時에 教長·教授·都執·執綱·大正·中正 등 六任도 새로 任命하여 東學再建에 나섰다. 그리하여 幹部들과 손을 나누어 黃海道, 平安道, 咸鏡道 各地로 숨어다니면서 熱心이 布教한 結果 教勢가 날로 늘어갔다. 그러나 先生은 廣濟蒼生하고 保國安民하려면 外國에 나가서 世界大勢를 살피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1901年(光武5年)3월에 그 동생 秉頌과 弟子 李容九를 帶同하고 日本으로 亡命하였다. 東京에 到着한 先生은 이름을 李祥憲이라 하고, 伊藤博文等 日本政界의 巨物級과 交遊하기 爲하여 雙頭馬車 또는 自動車를 타고 다녔으며, 甲申, 乙未政變의 亡命客 朴泳孝, 權東鎭, 吳世昌, 李軫鎬等과도 交遊하였는데, 이때 누구든지 先生을 東學教主 孫秉熙인 줄은 알지 못하고 다만 忠淸道の 富豪 李祥憲으로만 알고 있었다.

6. 一進會와 孫秉熙

先生이 日本에 亡命하여 第一먼저 느낀 것은 新學問을 배우는 人材를 養成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先生은 教會의 費用으로 前後 62名의 學生을 東京에 留學시켰거니와, 1903년에 滿洲와 韓國問題로 露日間の 戰雲이 짙어지자, 先生은 日本이 반드시 이길 줄 알고 日本과 同盟하여 露國과 싸울 것을 主張하였다. 韓國이 단일 露國便을 들면 나라가 亡할 것이요, 日本과 同盟하면

同盟國의 權利로서 獨立을 維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先生은 日本政界의 要人과 빈번히 來往하면서 日本軍部에 萬圓을 寄附하였다. 이 까닭에 先生은 親日派로 誤解를 받게 되었거니와, 1904年 2월에 露日戰爭이 일어나자, 先生은 韓國의 腐敗한 政治를 改革하기 爲하여 朴寅浩, 李容九等 頭目40餘名을 東京에 불러 進歩會의 組織과 教徒의 削髮을 指命하였다. 그러므로 그해 5월에 東學은 進歩會本部和 支部를 京鄕各地에서 組織하였는데 會長은 李容九가 選任되었다. 처음에 進歩會가 1.皇室을 尊重하고 獨立의 基礎를 鞏固히 할 것. 2. 政府를 改善할 것. 3. 軍政과 財政을 整理할 것. 4. 人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할 것. 等大綱領을 내걸고 京鄕各地에서 一齊히 開會하자 政府와 國民은 모두 어리둥절하였으나, 이것이 東學인 줄 알게 되자 政府는 彈壓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日本政府는 露日戰爭에 이긴 뒤 韓國을 마음대로 料理할 수 있는 親日政黨을 만들기 爲하여 咸鏡道 長津의 賤人으로 日本軍通譯이 된 宋秉畷에게 資金을 주어 舊獨立協會員 尹炳炳 廉仲模等과 함께 維新會를 조직하였으나 하나도 應하는 사람이 없었다. 進歩會가 全國各地에서 組織하게 되자, 宋秉畷은 그 組織을 利用하기 爲하여 進歩會長 李容九를 賣收하여 1904年 10월에 進歩會와 維新會를 統合하여 一進會라하고 李容九를 會長으로 삼았다. 李容九는 一進會長이 된 뒤 完全한 親日派로 變하여, 東學教徒를 日本軍의 軍需物資 輸送과 京義線 鐵道工事に 動員하고 保護獨立을 主張하여 마침내 乙巳條約의 締結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이다.

앞서 孫秉熙 先生이 日本과의 同盟을 主張한 것은 日本勢力을 利用하여 韓國의 獨立을 維持하자는 것인데, 李容九가 도리어 日本政府에 賣收되어 東學教徒을 이끌고 賣國行動을 하고 있으므로, 孫秉熙 先生은 東學과 一進會와의 關係를 끊기 爲하여 1905年 12月 1日 東京에서 東學을 天道教로 改稱할 것을 宣布하고, 1906年 1월에 歸國하여 天道教는 政教를 分離하여 政治活動은 하지 않고, 오로지 宗教活動만 할 것을 宣言하고 天道教組織에 나섰다. 2월에 天道教大憲을 頒布하고 金演局을 誠道主, 朴寅浩 李容九, 洪秉箕, 李鍾勳, 梁漢默과 東京에서 入道한 權東鎮 吳世昌을 六任에 任命하였다. 先生이 賣國奴 李容九를 天道教의 한 幹部로 任命한 것은 그가 先生의 手足과 같은 사람이었으므로 이를 懷柔하여 一進會를 脫退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나, 權力과 金力에 눈이 어두운 李容九는 先生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先生을 誹謗하므로 先生은 할 수 없이 그 해 10월에 李容九等62名의 親日背教分子를 驅逐하여 天道教와 一進會와의 關係를 完全히 끊고 말았다.

7. 天道教의 再建과 教育事業

1906年 10月 21일에 李容九等 62名의 親日背教分子를 肅清한 天道教는 極甚한 財政難에 逢着하였다. 當時 天道教의 모든 財政을 쥐고 있던 李容九 一派가 全財産을 가지고 달아나 侍天教를 만들어 天道教에 對抗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先生은 1907年 2월에 天道教 總本부를 茶洞에서 大寺洞 셋집으로 移轉하였는데, 이때 집세도 내지 못하여 飢饉을 당한 때도 여러번 있었다. 그러나 先生은 조금도 失望하지 아니하고 敎人들에게 한 끼에 한 순간의 誠米制度를 實施하여 차차 財政이 피어 나가고, 또 李容九의 賣國行動에 對한 國民의 指彈이 날로 높아지자, 侍天教로 들어갔던 敎人들이 다시 天道教로 돌아와 一年後 天道教의 敎勢는 옛날의 모습을 되 찾고 侍天教는 委縮一路를 걸고 있었다.

敎勢가 어느 程度 安定되자, 1908年 1월에 先生은 大道主職을 朴寅浩에게 넘기고 地方巡回講演과 聖地巡禮에 나섰다. 이때 아직 天道教를 一進會로 誤認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그 誤解를 풀겸 敎勢를 擴張하기 爲하여 地方巡回講演에 나선 것인데, 亦是 先生도 親日派로 誤解를 받아 3월에 平安南北道 地方을 巡回할 때 車輦館에서 愛國靑年들의 습격을 받아 重傷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4월에 다시 湖南地方을 巡回하고 1909년에는 敎祖 崔濟愚가 苦行을 쌓은 慶州一帶와 靈鷲山通度寺 및 千聖山寂滅窟을 두루 巡禮하고, 그해 年末에 一進會가 韓日合邦을 主張하는 聲明書를 發表하자 大韓每日申報, 皇城新聞, 大韓自彊會, 大韓協會等 다른 社會團體와 함께 一進會를 糾彈하고, 尙書 敎會의 說教를 通하여 獨立精神을 鼓吹하였다.

合邦以後 日帝가 韓國人의 言論, 出版, 結社의 自由를 禁하고 모든 新聞政黨 社會團體를 解散 시켰으나 天道教는 宗教團體이기 때문에 解散을 免하고 佛教, 基督教, 天主教, 侍天教와 함께 存續하여 布教活動을 할 수 있었으나 尙書 憲兵, 警察의 監視를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先生은 日帝의 監視를 피하기 爲하여 대단히 豪華한 生活을 하였다. 1906년에 李容九等을 肅清한 뒤 先生은 茶洞, 大寺洞 셋집으로 轉轉하였으나 1909년에는 松峴洞 敎堂과 嘉春洞 邸宅을 마련하고 그후 또 牛耳洞 鳳凰閣과 東大門 밖 賞春園을 장만하고 家庭에는 妻妾과 數많은 奴僕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出入할 때에는 그때 사람으로서는 敢히 업두도 내지 못하던 雙頭馬車와 自動車를 타고 다녔으며 天道教의 各種 紀念日에는 數많은 敎徒를 賞春園에 招待하여 큰 파티를 여는 등 王者 부럽지 않는 生活을 하였다. 그 까닭에 先生은 社會의 指彈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先生은 教育事業에도 힘을 썼다. 先生은 日本에 亡命해 있을 때 新教育의 必要性을 느끼어 教會의 費用으로 60餘名의 教徒子弟를 東京에 留學 시켰거니와 歸國後 各 私立 學校에 每月 若干의 補助金을 대어 주었으며, 合邦後에는 經營難에 빠진 同德女學校와 普成學園을 引受 經營하였다. 普成學園은 1905년에 皇室의 財政을 管理하던 前內藏院卿 李容翊이 創設한 것으로 壽松洞 現 曹溪寺자리에 있던 韓屋을 校舍로 定하고 專門學校(高麗大學校 前身), 中學校(普成中高等學校), 五山學校를 同時에 開校하였는데, 乙巳條約이 締結된 뒤 李容翊이 烏라지보스트로크로 亡命하여 그 곳에서 死亡하였기 때문에 그 孫子 李鍾浩가 經營하였다. 그러나 合邦後 李鍾浩도 또한 烏라지보스트로크로 亡命하였으므로 普成三校는 經營難에 逢着하여 萬圓의 負債를 지고 廢校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 소문을 들은 先生은 普成學園의 經營을 인계하여 負債를 清算 하고 1914년에는 校舍를 木造 二層으로 改建하고 1918년에는 普成專門學校를 榮園洞 現 建國大學校 자리로 移轉하여 그 面目을 一新하였다. 그런데 普成專門學校를 榮園洞으로 移轉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前校主 李鍾浩가 나타나 普成三校의 返還을 要求하였다. 普通 사람같으면 돌려주지 아니하려고 할 것이며 法的으로도 返還하지 아니하여도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先生은 學校는 公益事業이니 누가 經營하여도 좋다고 即席에서 返還할 것을 承諾하였다. 이것은 凡人으로서서는 할 수 없는 일로서 先生의 度量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當局에서 經營者 變更申請書를 許可해 주지 아니하므로 李鍾浩는 퇴각하 가지못하였다.

8. 三·一運動의 領導

孫秉熙 先生의 業積中 가장 빛나는 것은 三·一運動을 領導한 것이다. 三·一運動은 世界 第一次大戰이 끝난 뒤 美國 大統領 윌슨이 提唱한 民族自決主義에 힘을 얻어 天道教, 基督教, 佛敎의 세 宗教團體의 民族代表人의 發起에 依하여 일어난 것이나, 이것을 領導한 것은 孫秉熙先生이다. 1918年 年末에 先生은 大坂朝日을 通하여 윌슨이 民族自決主義를 提唱한 것과 파리平和會議에 弱少民族問題가 論議된다는 記事를 보고, 獨立運動을 일으킬 것을 決心하고, 教會의 重鎮 權東鎮, 吳世昌과 普成高普校長 崔麟과 數次 協議하여, 社會各界의 著名人士로 民族代表를 構成하고, 그 이름으로 獨立宣言書를 發表하고 大衆을 動員하여 示威運動을 展開하기로 하고, 그 進行을 崔麟에게 一任하였다. 이에 崔麟은 中央高普校長 宋鍾禹와 同校教師 玄相允 및 崔南善과 함께 일을 推進하였는데, 그들은 먼저 獨立 宣言

書에 署名할 民族代表者로써 韓圭高等 舊韓國 大臣 56名에게 交涉하였던 바 모두 拒絕하므로 基督教의 聯合하기로 하고, 當時 基督教의 重鎮인 定州 五山學校長 李昇薰을 서울로 올라 오게 하여 2月 11日 서로 만나 聯合할 것을 決定하였는데, 매마침 基督教에서도 Y.M.C.A의 幹事 朴熙道가 學生을 動員하여 獨立運動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基督教과의 聯合이 一時 難關에 부딪혔다.

이보다 앞서 民族 自決主義와 海外獨立運動者 및 東京留學生의 動態가 어렵푸시 傳해지자, 서울의 學生들도 슬렁대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본 朴熙道는 青年會員 募集을 빙자하고 1月 下旬 延專學生 金元鑿, 普專學生 康基德等 專門學校學生 10餘名을 觀水洞 大觀園에 招待하여 獨立運動을 일으킬 것을 決議하고, 普專卒業生 朱翼으로 하여금 獨立宣言書를 起草하게 하는 한편 各自 中學校以上の 學生을 包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2月 20日 李昇薰, 朴熙道, 吳華英等 여러 牧師가 會合하여 天道教와 聯合할 것 없이 基督教 獨目的으로 獨立運動을 일으킬 것을 決議하였다. 그러나 資金難으로 議論이 구구하였다.

이튿날 崔麟과 崔南善이 李昇薰을 만나 基督教 獨自的으로 獨立運動을 推進한다는 말을 듣고, 獨立運動은 階級이나 宗教를 超越한 民族全體에 關한 問題이므로 民族全體가 一致團結해야 하며 分散的으로 일어나면 이것은 民族의 不統一을 意味하는 것 밖에 되지 아니하니 絕對로 統合해야 된다는 것을 力說하였다. 李昇薰도 自己 역시 그렇게 생각하나 다른 同志와 相議하지 않고서는 決定할 수 없다하고, 다만 天道教에서 軍事 資金 5千圓만 빌려 주면 일이 잘 될 것이라 하니, 崔麟은 곧 孫秉熙 先生에게 連絡하여 現全 5千圓을 李昇薰에게 傳해 주어 마침내 基督教과의 聯合이 成立되었는데, 佛敎가 이에 參加한 것은 雪嶽山 神興寺 住持 韓龍雲이 崔麟과 親하기 때문이었다.

要컨대 3·1運動은 天道教, 基督教, 佛敎의 세 宗教團體가 統合하여 일어난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을 領導한 것은 孫秉熙 先生이다. 하마터면 基督教과의 聯合이 깨어질번 하였는데 先生은 5千圓이란 當時巨금을 서슴지 않고 내어 놓아 마침내 3·1運動과 같은 民族團結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 까닭에 先生은 33人和 함께 逮捕되어 最高刑인 3年言渡을 받게 되었거니와, 先生은 西大門 監獄에서 服役中 腦溢血로 收監 18個月만에 保釋되어 賞春園에서 療養하다가, 1922年 5月 19日 享年 62歲로 永眠하였다.

<성균관대 문리과대학 학장>